

## 1991년 12월 19일 제122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

○ 일시: 1991년 12월 19일(목) 오후 10시 7분 개회

○ 발언자:

- 구보타 마나에(久保田眞苗) 의원(일본사회당 소속 참의원 의원, 참의원 결산위원장, 경제기획청장관 등)
- 가토 고이치(加藤紘一) 국무대신(외무관료, 정치가, 자유민주당 소속. 방위청 장관, 내각관방 장관. 자민당 정무조사회장·간사장, 후쿠오카 시장, 일본중국우호협회 회장·명예회장)
- 도모토 아키코(堂本暁子) 의원(일본사회당 소속 참의원 의원, 지바현(千葉縣) 지사)

○ URL: <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214306X00619911219&spkNum=125&current=30>

○ 해제(개요 및 특징)

중군위안부 문제 조사 방안에 대한 구보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토 국무대신은 내각관방(內閣官房)을 중심으로 관계 여섯 기관이 적절한 조사체제 가동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.

○ 주요 내용 번역

- ▷ 구보타 “(전략) 진주만 공격 50주년이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. 역시 과거를 반성의 소재로 삼아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예컨대 **중군위안부** 문제입니다만, 비단 일본 안에서뿐만 아니라 버마에서도 **위안소** 문제가 제기되었고, 필리핀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. 그 당시 일본군 안에서 그와 같이 여성을 심하게 능욕한 일이 일어났고, 그 결과 그런 짓을 했다는 자료가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. 관방장관도 최근에야 상당히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,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셨습니까. 조사한다거나 그런 것들요. 그 이후로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?”

- ▷ 가토 국무대신 “구보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은, 아마도 정부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만, 그 조사체제를 어떻게 결정했냐 라는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12일 내각관방에서 이시하라(石原) 관방 부(副)장관 주재하에 자료가 수집될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 6개 성청(省庁),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무성, 문부성,

후생성, 노동성, 경찰청, 방위청입니다만, 그 담당자가 부장관 아래 모여 앞으로 어떤 조사체제를 좀 더 운영해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토의하여, 지금 각 성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.”

- ▷ **구보타** “첫째, 한국에서도 핵을 제거하듯이,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부디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제가 왜 이런 것을 들고나왔는가 하면, 이런 일은 오래된 거라 할 수도 없고, 낡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. 최근, 혹시 신문 등을 통해서 아실지도 모르지만, 에이즈 예방 포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에이즈 예방 포스터를 보고 여성 의원이 몹시 분개하여 후생성에 의사표시 차 간 적이 있습니다. 저 역시 아시아 이웃 국가의 문제를 생각하면, 이런 것이 걱정됩니다. 이런 포스터거든요. (자료를 보여준다) 도모토 의원님, 일전에 후생성에 다녀오셨는데, 그 경과와 여러분의 의견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”

- ▷ **도모토** “답변드리겠습니다.

벌써 웃고 계시는데요. 차원이 낮은 이야기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노르웨이같이 총리대신도 여성, 각료의 절반이 여성,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의 40%가 여성인 나라라면, 아마도 지금과 같은 그런 웃음소리는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. 저도 오늘 이 얘기가 나올 때, 그런 차원에서, 웃음이 나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지금 구보타 씨도 말씀하셨듯이, 저는 조선의 강제연행된 **위안부** 문제와 완전히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.”